

신앙고백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다함께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녀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겨러나 험한 산길 해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 말은이

(기도순서는 자녀, 또는 가정의 연소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아주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었는데,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어려운 이 때 주님 주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자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차별, 방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림의 주님을 높이는 모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문은 인도자가 읽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다 이루었다! 말은이

요19:28~30은 예수님의 가상 칠 언중 말씀을 하신 곳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후, 운명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이 헐렸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과 예수님의 부활을 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즉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고, 그 결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신 것은 부활의 사건과 하나의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룬 것인가요?

1.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 요한은 이를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목마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술초의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은 곧 죽음의 권세를 막은 어린양의 피와 같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있을 때,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가 손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출애굽의 어린양의 피와 대속의 성취이며 죽음과 무덤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댈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완성하신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앎이로다' (롬6:9)고 했던 것입니다.

2. 다 이루신 것은 불의한 것을 다 드러내고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불법과 불의를 드러낸 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악한 세상 사람들은 악한 계획과 권력과 힘으로 예수를 공격하여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고 악한 것의 끝을 꺾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불의와 불법, 악한 계획에 야합하지 않으며, 부활 신앙으로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예수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일입니다.

요20:19~20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마디가 평안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건져줄 위로자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눅 24:17~20). 그런데 그들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했기에 낙심했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 병들고 착취당했던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했기에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희망과 위로와 소망을 상실하면 사람들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의 부활을 경험하면 가난과 억압, 착취와 힘겨운 인생살이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 참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고 이를 다 이루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고 했습니다.

존 브로프의 매의 연구에 보면 매에게 때때로 까마귀나 딱새가 공격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매는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매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빙빙 돌며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나 딱새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부활의 믿음으로 높이 올라가면 그 어떤 사망과 절망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새성전은 그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봉 헌 다 함 께
 봉 헌 기 도 가 족 중
 (헌금은 추후 주일예배 참석 시 또는 교회별 안내에 따라 봉헌하시면 됩니다.)
 찬 송 370장 다 함 께

1. 주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기 도 문 다 함 께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인 또는 여럿이 드리는

가정 예배문

 한마음교회